

# 국제적 바른 인식을 위한 외국인 대상 독도 문화교육 방안

배진수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국제정치학 전공  
jsbae@nahf.or.kr

- I. 머리말
- II.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교육과 독도영유권
- III. 외국인 대상 독도 문화교육의 내용
- IV. 외국인 대상 독도 문화교육의 방법
- V. 맺음말

## I. 머리말

이 글은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교육의 내용으로서 2006년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100대 한국 민족문화상징의 ‘강역’ 항목에 해당되는 ‘독도’ 항목을 중심으로 문화교육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문화교육을 통한 한국 관련 국제적 바른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2006년 7월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100대 민족문화상징’의 ‘강역’ 항목에는 독도, 백두대간, 백두산, 금강산, 동해, 대동여지도 등 6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최근 한·일 간 국제 홍보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독도’와 ‘동해’는 그 선정 이유에 대해 “세계적으로 (명칭 자체를)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상시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sup>1)</sup>

최근 들어 독도영유권, 동해 표기, 일본군 위안부, 동북공정 등 한·중·일 간 역사 갈등 이슈가 국제적 홍보전 양상으로 전개됨에 따라 한국 관련 국제적 바른 인식의 확산이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이다. 특히 역사·영토 이슈와 같은 민감한 현안일수록 민족주의적 정서에 호소함으로써 상대방을 자극하여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보다는 문화인류학적으로 접근한 문화교육 방식이 훨씬 더 바람직하며 진정한 역내 갈등 해결을 위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국제적 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한국어 및 한국학 전공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교육은 최우선시되어야 하며, 향후 이들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기여도 또한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sup>2)</sup> 한국어 교육은 거시적으로 보면 한국의 대내외 정책과 관련이 있다. 대내적으로는 이주해 오는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통해 이들의 국내 정착을 순조롭게 하여 내부의 갈등을 제거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이해를 확대 및 심화하고 교류를 활성화하여 국가 간의 상호 이익을 증대하고자

---

1) ‘100대 민족문화상징’으로서의 ‘독도’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의 ‘민족문화상징 자료관’([http://nationalculture.mcst.go.kr/symbol/data/symbol\\_view.jsp](http://nationalculture.mcst.go.kr/symbol/data/symbol_view.jsp)) 참조.

2) 일본 외무성 자체의 문건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전 세계 120개 국가에 분포하고 있는 공자(孔子) 학원과 646개의 공자 학당 등을 통하여 자국의 역사 인식과 다오위다오(일분명: 센카쿠) 도서분쟁 관련 자국의 입장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http://mil.news.sina.com.cn/2014-05-05/0859777504.html>(검색일: 2014. 5. 5).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 동기는 주로 근대화된 한국이므로 한국문화교육의 학습 내용 또한 현재적 실체를 포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요컨대 한국문화교육의 내용이 되는 한국문화의 실체를 전통문화에서 일률적으로 찾는 것을 지양하고, 대신 현재형 한국문화의 실체를 정확히 제시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인의 삶과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의식이나 가치관에 해당되는 것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문화교육이 문화 산물에 대한 것이라면 한국문화의 선제적 해외 전파라는 관점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문화의 전파는 이해와 함께 향유 능력의 학습도 포함해야 한다.<sup>3)</sup> 한국문화의 세계화는 한국인 고유의 삶의 방식과 정신을 세계에 널리 전파하여 그 미와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확고한 자세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세계화의 궁극적 종착역은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한국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지점이기 때문이다.<sup>4)</sup>

심지어 독도 등 역사 갈등 이슈와 관련된 한국과 주변국 간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외국인들의 눈에는 종종 한국인들이 너무 다혈질적이고 즉흥적이며 감정적인 성향이 강해서 초래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 또한 독도가 한민족의 삶과 함께해온 것이라는 한국문화의 배경을 외국인들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교육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한국어 문화교육 분야에서도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을 통해 한국 관련 바른 역사 인식을 국제사회에 제고시키는 역할이 이미 강조되기도 했는데, 민현식(2006)은 특히 한·중·일 간 독도영유권과 동북공정 등 역사·영토 갈등 이슈의 국제적 바른 인식 제고를 위한 한국문화교육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현재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한국문화를 이모저모 소개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사 소개는 주변에 밀려 있거나 거의 체계적으로 제공되어 있지 않아 한국어를 아는

3) 김종철,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문화교육의 쟁점과 전망」, 『국어교육』 제133호(2010), 350쪽.

4) 장미영, 「세계화 전략을 위한 한국문화의 정체성: 한국인의 미적 지각과 표상 방식」, 『國語文學』 제49집(2010), 149쪽.

외국인들이 한국사에 무지한 채 또는 한국사에 왜곡된 중국사나 일본사의 관점을 바르게 교정받지 못한 채 한국어학과를 졸업하고 있고, 유학 와서도 한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한국어학과를 졸업하거나 돌아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단순히 우리는 비빔밥, 갈비맛을 보여주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 몇 편으로 한국을 이해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일이다. [...] 많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오히려 이런 문제(독도, 동해, 동북공정 등 역사 갈등 이슈)를 민감하다고 기피하고 의식주 놀이 위주의 문화 체험에 흐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교사들이 이런 민감한 문제를 평소 다룰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런 점에서 한국어 교사는 한국사는 물론 한일, 한중, 한미 등의 정치 외교 문화 교섭사에도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올바른 역사관 교육이 교사교육 과정에서도 필요하다.<sup>5)</sup>

구체적으로 민현식은 한국어 문화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 교수요목으로 한국 개관, 정신문화사적 측면, 생활 문화, 의식주 문화 등 총 11개 영역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의 역사’ 영역의 ‘국가 외교 현안’ 항목의 예시로서 “남북문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동북공정)과 백두산, 간도, 동해 표기, 일본의 임나일본부 조작과 독도 자국 영토 억지 주장 등”을 제시하였다.<sup>6)</sup>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2003년 이래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실시하여 외국의 교과서 전문가 초청, 교과서 상호 이해 세미나, 현지방문 활동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sup>7)</sup>

최근 한·일 간 독도영유권 갈등이 고조될수록 독도 관련 문화콘텐츠에 대한 기존 연구들도 다양한 양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권도경(2008)은 조선시대 독도수호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인 ‘안용복’ 소재의 문화콘텐츠에 나타난 독도영유권 분쟁 대응사적인 의미와 그 역사의식을 분석한 바 있다.<sup>8)</sup> 이 외에 독도와 관련된 문화콘텐츠 사례로서는 <독도를

5) 민현식,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방향과 방법」, 『한국언어문화학』 제3권 2호 (2006), 160-161쪽, 170쪽.

6) 민현식이 제시한 한국어 문화교육용 기본 교수요목의 11개 영역은 (1) 한국의 정신문화사적 측면, (2) 한국 개관, (3) 한국 생활 문화, (4) 한국의 의식주 문화, (5) 한국의 매체 문화, (6) 한국의 창조, (7) 한국의 문학, (8) 한국의 역사, (9) 한국인의 사고방식, (10) 한국의 인물, (11) 한국의 언어문화 등을 말하며, ‘한국의 역사’ 영역에는 ‘국가 외교 현안’ 이외에 ‘한국사 개관’(고조선-삼국-고려-조선-일제-대한민국) 항목과 ‘한국 사건사’(3·1 운동, 8·15 광복, 6·25 전쟁, 4·19 혁명, 5·16 군사정변 등)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위의 논문, 153쪽 참조.

7)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홈페이지(<http://www.ikorea.ac.kr>) 참조.

8) 권도경, 「안용복 문화콘텐츠의 존재양상과 독도영유권 분쟁 대응사적인 의미」, 『한국

지켜라》(2005), 《칼 온라인 독도 투혼 이벤트》(2006), 《피 묻은 락 패》(2005), 《동쪽 끝 우리 땅, 독도》(2005), 《황금성의 비밀-독도 바다 밑 석유를 지켜라》(2006), 《아시아 인 러브 판판판》(극단 빛누리), 《독도 지키미 로봇 태권V》, 《독도 이야기》, 《독도는 우리 땅》(2005), 《독도는 알고 있다》(2005) 등을 들 수 있다. 2012년 11월에는 NGO 단체인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미국 현지에서 하버드대학교 한인유학생회와 함께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한 감성적 접근을 통해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단순히 영토문제나 인권문제가 아닌 일본의 역사적 침탈사를 외국인들에게 전달하는 ‘21세기 신 헤이그 특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sup>9)</sup> 같은 해 《국민일보》와 한국고유문화콘텐츠진흥회가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을 맞아 공동 주최한 ‘제3회 나라사랑 창작 작품 공모전’에서 UCC 《독도는 맛있다》라는 작품이 대상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sup>10)</sup> 독도를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가 계속해서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하 제2장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의 배경과 기존 교재에서의 독도 기술 실태를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독도영유권의 본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제3장에서는 문화교육적 틀에 의거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독도 문화교육의 내용체계를 구성해본다. 그리고 이어 제4장에서는 독도 문화교육의 실제 방법과 관련하여 교수학습 모형 및 과정안을 시론적으로 예시해보고자 한다.

## II.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교육과 독도영유권

문화라는 것은 사회적·정치적 현실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맥락 속에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문화란 “한민족이 역사 속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형성해온 생활양식의 총체”로서 달리 말하면 “한민족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그 주변 일대에서 환경에 적응하고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지키며 삶을 영위해온 생활양식 전반”<sup>11)</sup>이라 할 수 있다.

언어문학』 제66집(2008), 205-233쪽.

9) 《경향신문》, 2012년 11월 12일자, 21면.

10) 《국민일보》, 2012년 11월 10일자, 11면.

## 1.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교육 교재에서의 독도 기술 실태

한국어 문화교육과 관련된 기존의 석·박사학위논문만 하더라도 100여 편에 달하며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까지 포함하면 200편 내외가 되는 것으로 집계된다.<sup>12)</sup> 문화교육 관련 여러 연구에서는 문화교육을 위한 다양한 자료(도구)의 활용 사례로서 관용구, 관용어 유래담, 속담, 스토리 텔링, 비언어적 의사표현, 판소리, 민요, 탈춤, 설화, 유머, 한국역사, 대중가요, 소설과 영화, TV 드라마 등이 시도된 것으로 파악된다.<sup>13)</sup>

1970년대 이후 외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이 일반화되면서 문화교육이 명시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외국어 교육과정에 문화가 주입되기 시작했는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도 1980년대 후반부터 문화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sup>14)</sup> 2000년 이후에는 급격히 ‘외국인을 위한’이라는 외부자의 시각에서 한국문화 정체성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많아졌는데, 이는 2002년 월드컵 개최 이후 한국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 및 한류 대중문화의 세계화 현상과 함께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2005년 이후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 이주자,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사회 통합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문화교육이 절실해진 시대적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도 보인다.<sup>15)</sup>

2007년 이후 2011년까지 집중적으로 집필되기 시작한 외국인 대상의 한국문화 교재는 현재 약 30종 정도 파악되지만 제목이 ‘(한국)문화’가 아닌 ‘한국사회 또는 한국사’ 등인 경우, 동일 저자의 교재 또는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등 6종을 제외하면 총 24종으로 집계된다.<sup>16)</sup> 한국문화

---

11) 임경순, 『한국어 문화교육을 위한 한국문화의 이해』(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9), 15쪽.

12) 2014년 5월 29일 현재 국회도서관 검색 결과에 따르면, ‘자료명’ 상세검색의 경우 “한국어 & 문화교육”과 관련된 석·박사학위논문은 129편이고 학술기사는 152편으로 집계되며, ‘키워드’ 상세검색의 경우 “한국어 & 문화교육”과 관련된 석·박사학위논문은 74편이고 학술기사는 60편인 것으로 집계된다.

13) 김재욱, 「한국어 교육」, 『국어연감』(국립국어원, 2011), 310쪽 참조.

14) 이미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통합 교육: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의 통합 양상을 고려한 교육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제1권 제1호(2004), 143쪽, 161쪽.

15) 김해욱, 「한국문화교육 관련 교재 개발 현황과 과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7차 국제학술대회(2012), 176-178쪽 참조.

16) 분석에 제외된 6종의 문화교재는 우선 제목이 ‘한국문화’가 아닌 『외국인을 위한 한국

교재의 절반 이상이 생활문화, 전통문화 등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국 관련 국제사회의 바른 인식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강역(영토)이나 역사 등과 같은 주제들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않은 교재가 다수이며, 독도 주제를 조금이라도 다루고 있는 교재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sup>17)</sup>

표1-한국문화 교재의 독도 기술 실태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 교재명 (저자, 출판사, 발간연도)	독도 기술 실태
1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 (김인구, 한국문화사, 2006)	×
2	외국인을 위한 한국현대문화 (이선이, 한국문화사, 2007)	×
3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한국문화 (박영순, 현암사, 2008)	×
4	문화로 배우는 한국어 1·2 (전성운·손다정, 보고사, 2008)	×
5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회와 문화 (조항록, 2008)	×
6	문화 속 한국어 1·2 (전미순, 한글파크, 2008·2009)	×
7	통으로 읽는 한국문화 (박한나, 박이정, 2009)	[Ch. 2 자연환경과 행정/제1과 지리와 기후/1. 지리/바다와 섬] (48쪽) 동해에는 무인도 섬인 독도가 있다. 독도는 조그마한 바위섬에 지나지 않으나 국토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독도를 사랑하고 조심들이 물려준 것을 잘 지키지는 독도 지킴이 활동에 온 국민의 관심이 크다.

사회 이해』(구현정·서은아, 2008)와 『재외 한국인을 위한 한국사회의 이해』(이혜경 외, 한국이민정책발전재단, 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전국역사교사모임, 2010), 『외국인을 위한 오늘의 한국』(이선이·이명순, 2011), 동일 저자의 유사 교재인 『외국인을 위한 살아 있는 한국현대문화』(이선이·조운아, 2011), 그리고 자료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권영민 외, 2009) 등이다. 국외에서 발간된 일부 교재, 이를테면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 역사문화분과위원회가 2010년에 발간한 『한국을 찾아라(Find Korea!)』 및 2011년 발간한 『한국을 알자(Explore Korea)』는 교재 자체가 역사문화 주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제목의 ‘한국문화’ 여부와 상관없이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17) 그나마 재외 한글학교 동포들을 대상으로 편찬된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 역사분과위원회의 『한국을 찾아라』(2010)와 『한국을 알자』(2011) 등을 비롯한 몇몇 한국문화 교재와 같이 한국 관련 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고심하며 내용을 구성한 훌륭한 교재도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의 교과서에서는 독도가 표기되거나 언급되는 경우가 매우 드문데, 이에 관해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외국 교과서에 비친 한국』(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참조.

8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길라잡이 (조재운 외, 박이정, 2009)	[Ch. 1 한국의 자연/Section 1 한국의 지리/02 섬과 해안] (19쪽) 독도는 울릉도에서 뱃길로 3시간여 소요되는 곳에 있으며, 2개의 섬과 주변의 30여 개의 암초로 이루어져 있다. 화산작용으로 형성된 해저산이며 아름 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다. 조그마한 바위섬에 지나지 않지만, 풍부한 수산자원과 지리적 중요성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은 오랫동안 영유권 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자료에도 신라시대 이후 분명한 한국영 토로 기록되어 있다. ……(사진 설명 부분) 일본과 영 유권 분쟁을 치르고 있는 독도…….
9	외국인을 위한 한국, 한국인 그리고 한국문화(최운식 외, 보고서, 2009)	×
10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 (김해욱,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0)	×
11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문화(1) (박경수 외, 한글파크, 2010)	×
12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이미혜 외, 박이정, 2010)	×
13	이야기가 있는 한국어 한국문화 (조정순 외, 다락원, 2010)	×
14	한국을 찾아라( <i>Find Korea!</i> ) (최미영 외, 재미한국학교 북가주 협의회, 2010. 7)	(학생용 21쪽) “도, 도시, 바다 이름을 지도에 표시하기: 동해, 독도…….” (학생용 23쪽) “대한민국 ○× 위즈: 2. 한국의 동쪽에는 동해 바다가 있다. […] 9. 동쪽 끝에 있는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다.” (교사용) 동영상, 플래시(독도 광고), 음악(독도 노래)
15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상) (김진호 외, 역락, 2011)	×
16	외국인을 위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 (박성준·이선이, 한국문화사, 2011)	×
17	생활 속 한국문화 읽기 (이해영 외, 한글파크, 2011)	×
18	한국을 알아( <i>Explore Korea</i> ) (최미영 외, 재미한국학교 북가주 협의회, 2011. 7)	×
19	외국인 대상 한국의 언어와 문화 (한길, 역락, 2011)	×
20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문화의 소통과 이해(김동현 외, 대구과학대 GHC사업단, 배영출판사, 2012)	×
21	한국어 교사를 위한 한국문화의 이해(김영국, 바람나무, 2012)	×
22	외국인을 위한 한자와 한국문화 (배규범, 한국문화사, 2012)	×
23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상역, 소통, 2013)	×
24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문화의 이해(박호문 외, 대구과학대 GHC 사업단, 배영출판사, 2013)	×



제외동포를 위한 한국문화 교재인 『한국을 찾아라(Find Korea!)』를 제외한다면, 순수 외국인을 대상으로 독도를 다룬 한국문화 교재는 2종에 불과한 셈인데, 이마저도 독도 관련 기술이 자칫 한국의 대외적 입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테면 독도에는 현재 주민뿐만 아니라 등대원과 경찰 경비대원 등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화 교재에 “동해에는 무인도 섬인 독도가 있다”<sup>18)</sup>라고 기술하고 있어 자칫 독도영유권과 관련한 한국의 국제적 입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sup>19)</sup> 또한 다른 한국문화 교재에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치르고 있는 독도……”라고 기술하여 한국과 일본 간에는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과 배치되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다.

## 2. 한국의 독도영유권 개관

2006년 당시 문화관광부에서 ‘100대 민족문화상징’으로 독도를 포함시킨 선정 이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독도’는 한국의 동쪽 끝 섬으로서 한반도 해양강역의 제일 상징물인데, 최근 일본의 외무성·문부과학성 등 정부의 홈페이지와 교과서에서의 독도영유권 역시 주장이 국제 홍보전 양상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우리 땅 독도’를 국제사회에 바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 입장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sup>20)</sup> 일본 주장의 뿌리는 1905년 2월 22일 시마네 현(島根縣) 고시 제40호에 있다. 일본인은 이를 ‘독도 영토편입’이라고 강변하지만 그것은 ‘편입’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러일전쟁 중 ‘일본 제국주주의 대한제

18) 박한나, 『통으로 읽는 한국문화』(박이정, 2009), 48쪽.

19) 최근 국내의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사회·역사·한국사·동아시아사·한국지리·각종 부도) 110종을 검토한 결과에도 독도가 무인도라고 기술된 오류를 포함하여 292건의 독도 관련 기술 오류가 발견되어 2014년 3월에 교육부에서 수정·보완 조치를 한 적도 있다. 《연합뉴스》, 2014년 3월 30일자 참조.

20)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http://dokdo.mofa.go.kr>) 참조(검색일: 2014. 6. 20).

국 침탈'일 뿐이다. 한때 국권을 상실했던 시대에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편입당했다가 되찾은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땅이다.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일본은 영토문제로 접근하는 데 반해, 우리 한국은 영토문제가 아닌 역사문제로 보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sup>21)</sup> 외국인들에게 독도를 역사문화 교육 측면에서 소개하고 이해시켜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국의 영토인 독도문제의 출발점은 일제의 침략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1904년 2월 23일의 한일의정서, 1904년 8월 22일의 제1차 한일협약으로 시작되는 일제의 한국 침략 외증인 1905년 2월 22일 일본은 소위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방적으로 편입조치하고, 이어 1905년 11월 17일에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과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정미조약)을 거쳐 1910년 8월 마침내 한일강제병합에 이르게 된다.

러일전쟁 당시 일본의 독도 침탈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04년 2월 8일 일본이 여순항의 러시아 군함 2척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러일전쟁이 발발하였으나, 불과 몇 달 뒤인 5월경만 해도 일본 해군은 전력의 3분의 1을 상실할 정도로 러시아 발틱함대에 비해 열세에 있었다. 이를 극복하려는 전략적 차원에서 일본군은 9월 1일 울릉도 서쪽과 남쪽에 감시망루를 각각 설치하였고, 이어 9월 24일에는 일본군함 '니타카(新高丸)'호가 독도망루 설치를 위한 현지조사를 떠났다. 그로부터 5일 뒤인 1904년 9월 29일에 일본의 어업가인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郎)가 '독도 영토편입 청원서(貸下願)'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당초 그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일본 정부를 통해 '독도 임대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당시 일본 해군성 수로국장 등의 사주를 받아 결국 '독도 영토편입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1905년 1월 1일에는 일본군이 여순을 함락시킴에 따라 러시아 발틱함대와 의 최종 결전을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 1월 10일 내무대신은 총리대신에게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이라는 비밀공문을 보내 독도 편입을 위한 내각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으며, 불과 2주일여 지난 1월 28일 일본 내각은

21) 한·일 간 독도영유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http:// dokdo.mofat.go.kr](http://dokdo.mofat.go.kr)),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홈페이지(<http://www.dodkohistory.com>),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http://www.ilovedokdo.re.kr/kmi/dokdo/>), 한국해양연구원 독도종합정보시스템(<http://www.dokdo.re.kr>) 등 참조.

전격적으로 독도 편입을 결정하였고, 뒤이어 2월 22일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무주지로 간주하여 일본의 영토로 불법 편입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도는 원래의 소유자인 한국의 영토로 원상회복되어 한국이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일본은 과거 침탈했던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만 계속하고 있다.<sup>22)</sup>

2005년 들어 일본 지방정부 차원인 시마네 현에서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명)의 날’ 조례가 제정된 이래로, 2006년의 한·일 간 동해 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둘러싼 위기 촉발 상황을 거쳐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국토지리원, 외무성, 문부과학성, 방위성 등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2007년 12월 일본 국토지리원의 독도 정밀 위성지도(25,000분의 1 축척) 제작,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의 독도 홍보용 팸플릿 제작·배포와 외무성 홈페이지 게시 및 이후 10개 외국어 번역본 제작·배포로 확대, 2008년 7월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명기 강행, 2009년 12월 일본 문부과학성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관련 2008년 중학교 해설서 입장 유지, 2010년 3월 일본 문부과학성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본의 독도 기술 강화, 2011년 3월 중학교 교과서 검정본의 독도 기술 강화, 2012년 3월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본의 독도 기술 강화, 그리고 매년 일본 방위성 방위백서 및 외무성 외교청서에서의 독도 기술 반복 등 일련의 독도 영유 도발이 전 방위적으로 계속 이어져왔다. 그리고 심지어 2012년 8월에는 지난 1962년 이래 50년 만에 일본이 다시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를 제의하는<sup>23)</sup> 등 적극적으로 국제공론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으로 침탈되었던 독도와 한반도에 대해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22) 러일전쟁 당시 일본 군부의 독도침탈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김병렬, 『일본 군부의 독도침탈사』(바른역사정립기획단, 2006) 및 『일본은 이렇게 독도를 침탈했다』(바른역사정립기획단, 2006. 7. 7; 동북아역사재단, 2007. 4. 15) 참조.

23) 1958년 9월 25일에 일본은 처음으로 한국 정부에게 독도영유권 관련 국제사법재판소(ICJ) 합의 제소를 제안한 바 있고, 1962년 3월에도 한일외상회담에서 ICJ 제소를 제의한 바 있다. 1950년대 이래로 최근까지 한·일 간 독도와 관련하여 망라된 연표에 대해서는 배진수, 『독도 이슈 60년과 한국의 영토주권: 독도 이벤트테이터(1952-2010년)』(동북아역사재단, 2012) 참조.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한국 국민들은 일제의 한반도 침탈이라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의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현재 독도에는 한국의 경찰, 공무원 그리고 주민이 40여 명 거주하고 있고, 매년 1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평화롭게 드나들고 있다. 우리는 일본과 함께 바른 역사 인식을 토대로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는 데 협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잘못된 영유권 주장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독도로 인해 발생하는 한·일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sup>24)</sup>

### III. 외국인 대상 독도 문화교육의 내용

문화교육의 내용을 구성할 경우에는 먼저 한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의 목적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의 목적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다르다는 사실부터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문화교육의 2차 목적은 문화 간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해 인류가 더불어 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 유형이 서로 같지만, 문화교육의 1차 목적은 차이점이 있다. 즉, 한국인이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목적은 한국인이 어떤 사회문화적 존재인지를 알고 한국의 사회문화적 현실을 인식함으로써 한국인과 한국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1차적인 목적이 있는 데 비해, 타 문화권 사람이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목적은 자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국인과 한국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문화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고 심도 있게 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sup>25)</sup> 이하에서는 먼저 국내 한국인 대상의 독도 교육 현황부터 간략히

24)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http://www.historyfoundation.or.kr/?sidx=85&styp=1>) 참조(김색일: 2014. 5. 15). 독도영유권에 관한 한일 간 주장과 논리 및 기존 연구들을 망라한 최근의 종합적인 분석으로는 김학준, 『독도연구: 한일 간 논쟁의 분석을 통한 한국영유권의 재확인』(동북아역사재단, 2010), 사료의 분석으로는 정병준, 『독도 1947: 전후 독도문제와 한·미·일 관계』(돌베개, 2010)와 유미림,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지식산업사, 2013), 정치학적 분석으로는 최장근, 『한국영토 독도의 '고유영토론': 미국과 일본의 영토팽창론을 경계하다』(제이앤씨, 2014); 배진수, 『독도 이슈 60년과 한국의 영토주권: 독도 이벤트데이터(1952-2010년)』(동북아역사재단, 2012); 호사가 유지, 『대한민국 독도: 일본 논리의 종언』(BM성안당, 2010) 등 참조.

25) 임경순, 앞의 책, 6쪽.

살펴본 후, 외국인을 위한 독도 문화교육의 내용체계 구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1. 한국의 독도 교육 현황

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서의 독도영유권 도발이 강화될수록 한국에서의 독도 교육 또한 강화되어왔다. 1996년 9월 2학기부터 전국 1만 9,000여 개 초등학교의 4학년이 사용하는 '사회과 탐구' 교과서에 독도에 관한 내용이 대폭 수록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의 초·중·고 교과서에서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화산섬으로 사람이 살기 어려우나 고기잡이와 국방상 중요하다는 정도로 간략하게 취급했다. 1996년 당시 교육부가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하기로 한 『사회과 탐구』 교과서에 따르면 '해안과 섬지역의 생활'이라는 대단원 안에 '독도'라는 소단원을 넣어 독도에 관한 내용을 3쪽에 걸쳐 실고 있다. 초·중·고 교과서에 독도에 관한 내용이 무려 3쪽의 분량으로 다루어지기는 이때가 처음으로 당시 일본의 독도영유권 억지 주장과 관련해 '독도 교육' 강화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9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고, 2개의 큰 섬(서도와 동도)과 주위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곳을 지키는 경찰관과 어민이 몇 명 살고 있다는 등 8개 항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특히 지난 1984년에 방송 금지되었던 <독도는 우리 땅>(박인호 작사·작곡)이라는 가요가 5절까지 완전 수록되었으며, 사진에는 '독도의 전경', '동도', '서도', '독도의 어민', '바다를 감시하는 독도의 우리 경찰' 등 다섯 장면도 게재되어 있다.<sup>26)</sup>

경상북도교육청은 2009년 2월에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5·6학년 정규 수업 시간에 적용하고자 영원한 우리 땅 독도를 지도하기 위한 교과용 도서 『독도』를 도교육감 인정 도서로 개발해 도내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전국 시·도 교육청과 유관 기관에 배부한 바 있다. 당시 발간해 배부한 '독도' 인정 도서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억지 주장과 동해 해저 지명의 일본식 표기 등의 만행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전국

26) 《연합뉴스》, 1996년 2월 16일자.

최초로 국가 영토에 관한 교과용 도서를 정규 교육과정에 적용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명시하고 지도 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도 했으며, 자료에는 학생용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인 인정 도서 2종과 컴퓨터를 활용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CD-ROM 자료 1종을 포함한 총 3종이 들어 있다.<sup>27)</sup> 경상북도교육청은 이어 2009년 4월에는 중·고등학교 독도 관련 수업과 재량·특별활동 및 행사 등에 교사들이 참고할 장학자료 『지켜야 할 우리 땅, 독도』를 개발해 학교와 교육청 등에 배부하기도 했다. 『지켜야 할 우리 땅, 독도』는 독도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역사와 역사적 관점에서 본 독도영유권, 독도와 국제법, 일본 주장의 허구성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수업지도안 예시자료를 제시해 수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28)</sup>

김수희(2012)는 한국 교과서에서의 독도 기술을 검토한 후 독도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독도 교육은 독도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어민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 조상들이 독도를 어떻게 갔는가, 어떻게 이용했는가를 제시하는 것부터 출발할 것을 제안한다. 거문도인들의 어로활동, 제주 해녀들이 독도를 삶의 터전으로 가꾸기 위해 물골 수신(水神)에게 감사하며 제사를 지내는 모습, 독도 최초 주민 최종덕이 물골 가는 길을 정비하는 모습을 통해 독도가 우리 어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sup>29)</sup> 비슷한 맥락으로, 최근 2012년 8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관한 독도체험관의 전시 콘텐츠와 관련하여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시에서 수적 열세를 보완할 수 있는 요소로 스토리텔링이 활용될 수 있으며 스토리텔링은 주제에 대한 전문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sup>30)</sup>

2011년 2월 28일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서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독도 교육 내용체계(가이드라인) 안내'란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초·중·고교 각 단계별로 가르쳐야 할 독도 교육의 목적과 목표, 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르면, 초등학생에게는 우선 독도의 명칭·기후 등

27) 《브레이크뉴스》, 2009년 2월 10일자.

28) 《뉴시스》, 2009년 4월 13일자.

29) 김수희, 「한국 교과서에서의 독도 기술 검토」,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주최 독도교육 학술대회(2012. 12. 6), 〈한일 양국의 독도 교재 비교 검토〉, 118쪽.

30) 정영미, 「독도체험관 설립의 빛과 그림자」, 사회강좌(2012. 12. 20) 참조.

자연지리와 정치·군사·경제적 가치를 이해시키고, 중학생이 되면 일본의 침탈과정 등 우리의 독도영유권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가르치며, 고등학생은 독도 수호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관계 구축에도 관심을 갖도록 균형 잡힌 ‘독도관’을 배양하도록 가르친다는 것이다.<sup>31)</sup> 교육부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해 체계적인 독도 교육을 위한 내용체계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용 독도 부교재인 『독도 바로 알기』(2011년 8월), 중학생용 독도 부교재인 『영원한 우리 땅 독도』(2011년 12월), 고등학생용 독도 부교재인 『독도 바로 알기』(2011년 12월), 독도 교육 참고자료인 『우리 땅 독도를 만나다』(2011년 12월) 등을 순차적으로 발간하여 각급 학교에 배포한 데 이어, 2013년 4월에는 독도 부교재 활용을 위한 초등학생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각 『교수·학습 과정안 및 학습지』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초등·중등·고등 각 학급 단계별 독도 교육 내용체계를 보면, 단계별 문화교육 체계에 관한 여러 국내외 학자의 이론적 틀과도 유사한 맥락임을 알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외국인 대상 독도 문화교육 내용체계를 구성해보기로 한다.

## 2. 외국인 대상 독도 문화교육의 내용체계 구성

이 글에서는 지식-기능-태도의 범주화에 따라 문화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김종철은 한국문화교육이 문화 산물에 대한 것이라면 한국문화의 해외 전파라는 관점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문화의 전파는 이해와 함께 향유 능력의 학습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해뿐만 아니라 향유와 가치 추구까지 염두에 둔 한국문화교육의 단계를 다음 4단계로 일반화하고 있다. ① 1단계: 한국문화 산물 이해(명칭 학습, 용도와 구조 이해 등), ② 2단계: 한국문화 산물 향유(입어보는 것, 먹어보는 것 등), ③ 3단계: 향유가 추구하는 가치 인식, ④ 4단계: 가치 판단을 해당 언어로 표현.<sup>32)</sup>

이 외에 여러 연구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제시되고 있는 문화교육의

31)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년 2월 28일자로 시·도 교육청에 발송한 공문(독도 교육 내용체계 및 활용협조) 참조. 최근 2014년에도 ‘독도 교육 내용체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2) 김종철, 앞의 논문, 353-354쪽 참조.

단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콜브(Kolb)는 경험으로 배우는 학습모형을 다음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참여(구체적 경험 단계) → 기술(반추적인 관찰 단계) → 해석(추상적인 개념화 단계) → 반응(능동적인 실험 단계).<sup>33)</sup> 모란(Moran)은 문화 경험과 관련하여 다음 4개의 학습 상호 작용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대상을 아는 것, 방법을 아는 것, 이유를 아는 것, 자신을 아는 것.<sup>34)</sup> 콜브와 모란의 경험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문화교육 단계는 일반적으로 다음 3개로 구분되기도 한다. 지식(대상을 아는 것, 사실·자료·지식 등) → 기능(기능을 아는 것, 이해·표현·어휘·문법 등) → 태도(자신을 아는 것, 동기·흥미·습관·관점·가치 등).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식'은 대상을 아는 것으로 문화적인 정보를 얻고 수집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문화적인 정보의 학습은 문화적 사실, 자료, 지식 등을 학습자가 처음 경험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초급에서는 필요성과 목적을 알고, 중급에서는 개념과 방법을 알고, 고급에서는 상황과 특성을 아는 것으로 위계화 될 수 있다. '기능'은 기능을 아는 것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는 이 과정을 통해 문화를 실행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목표문화의 관점과 내용, 문화목표와의 접촉 경험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문화와 비교하게 된다. 또한 내부자와 외부자의 관점을 모두 이해하고, 학습자 모국의 문화를 분석 비교하는 능력을 이용하여 목표문화를 이해하게 된다. '태도'는 자신을 아는 것으로 학습자가 학습동기와 흥미를 가지고, 문화 습관을 세워 자신과 목표문화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이는 점점 단계가 심화되어 이루어지는데, 초급에서는 동기와 흥미를 가지게 되고, 중급에서는 습관을 가지게 되며, 고급에서는 자신과 목표문화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된다.<sup>35)</sup> 이 글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해온 문화교육의 단계를 혼용하여 적용할 것이다.

그다음에는 지식-기능-태도 범주별로 초급-중급-고급의 위계화를

33) D. A. Kolb, *Experiential Learning: Its Assessment and Accreditation*(London & New York: Routledge, 1984) 참조.

34) Patrick R. Moran 저, 정동빈 외 역, 『문화교육』(경문사, 2004) 참조.

35) 다른 연구에서는 '준비 단계 → 문화 이해 단계 → 활용 단계 → 마무리'로 도식화되면서, '기능'은 '문화 이해 단계'와 '태도'는 '활용 단계'와 각각 비슷한 맥락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 같다. 이미해, 앞의 논문, 155쪽 참조.



감안하여 브루너의 나선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내용체계를 구성하고자 한다. 교육 내용의 배열방법에 따라 교육과정을 선형 교육과정과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나누고 있다. 선형 교육과정은 선행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을 직선으로 누적하는 것을 말하고, 나선형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수준과 교육 목적에 따라 새로운 내용을 삽입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내용을 확장시켜가며 반복적으로 다루는 것을 말한다. 나선형 교육과정 복습을 통해 선행 학습 내용이 다시 순환되고 새롭게 배우는 과정과 결합·확장되어 점진적으로 내용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내용의 계속적 반복은 학습의 흥미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전 단계의 무조건적 반복이 아니라 선행 학습 내용과 새롭게 배우는 내용을 결합하고 확장시켜야 한다.<sup>36)</sup>

한편, 학습자의 언어 숙련도에 따라 문화 요소를 선정하고 배열하는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에 접목시켜볼 때, 초급에서 중급, 고급으로 갈수록 학습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문화 정보를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언어를 사용하여 문화를 비판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며, 고급 단계로 갈수록 문화 학습과 언어 학습의 통합이 사회적인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강한 결속력을 갖도록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고급 단계로 갈수록 언어를 사회 문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교육 모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sup>37)</sup>

초급 학습자는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문화 요소를 선정하거나 정보를 거르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중급, 고급으로 갈수록 학습자 중심의 문화 정보 탐색이 가능하다. 학습자 자신이 원하는 문화 내용을 선정하여 직접 조사를 거쳐 스스로 지식을 전달하고 논의하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가능한 것이다. 중급 학습자들의 경우는 인터넷을 활용한 문화 정보 검색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은 다양한 실제 자료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화 간 의사소통의 기회도 풍부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수업은 문화에 대한 학습을 수반하는 것이고, 문화 자체를 언어활동의 주제로 채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터넷에서 접하게 되는 실제

36) Jerome Bruner, *Toward a Theory of Instruction*(New York: W. W. Norton, 1966).  
이미정, 「한국어 목적 연결어미의 나선형 교육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11), 11-12쪽에서 재인용.

37) 이미혜, 앞의 논문, 154쪽.

표2-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수준별 독도 문화교육의 내용 예시

교육 목표	독도가 한국의 동쪽인 동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한국 국민의 삶의 터전으로 함께해온 민족문화상징으로서 소중한 우리 땅임을 이해할 수 있다.		
수준 범주	초급	중급	고급
지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 명칭 의미</li> <li>• 해상 지형(3차원)</li> <li>• 한반도(육지/섬)로부터의 방향, 거리</li> <li>• (평지 시설) 접안시설, 주민 숙소, 동쪽 땅끝 표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의 옛 이름(우산도 등)</li> <li>• 지형도</li> <li>• 한국(울릉도) 및 일본(오키섬)과의 거리</li> <li>• (산 시설) 등대, 경비대, 헬기장, 우체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서양식 명칭(다케시마, 리앙고 등)</li> <li>• 해저 지형(3차원)</li> <li>• 경도, 위도</li> <li>• (영유권 표시) 독도 영토표석, 한국령 표시(암벽) 등</li> </ul>
기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듣기) 동영상, 뮤지컬 음악(홀로아리랑)</li> <li>• 독도 모형도</li> <li>• 소개 시청각 매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하기/읽기) 노래(독도는 우리 땅)/사료 해제문 읽기</li> <li>• 독도체험관(서울), 독도박물관(울릉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쓰기/말하기) 연락(행정구역 주소로 편지 쓰기)/발표(모국 사례와 비교)</li> <li>• 직접 가는 방법(배편, 입도, 명예주민증 발급)</li> </ul>
태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생태환경)적 가치(동식물 등)</li> <li>• 주민(어민) 거주 등대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가치와 EEZ(배타적 경제수역), 수산자원, 해저 자원</li> <li>• 경찰 주둔, 해경 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보적 가치, 영유권 근거</li> <li>• 비람직한 국제사회 해결 사례(미·쿠바 후벤투드 도서 영유권 갈등 해결)</li> </ul>

자료는 사회적 가치도 반영하고 있으므로 문화 간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38)</sup>

이 글에서는 한국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평균적인 교양 정도를 측정하여 이를 모델로 삼아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수준별 문화 학습의 범위와 깊이를 설정하는 방법을 원용해보고자 한다. 이를테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초급·중급·고급 수준별로 한국문화에 대한 평균적인 교양 정도를 각각 한국 학생들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수준으로 상정하는 식이 될 것이다. 문화교육의 '지식-기능-태도'의 범주에 의거하여 교육부에서 제시한 초·중·고 각급 학교별 독도 교육 내용체계의 기본적인 틀을 원용하여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초급·중급·고급별 독도 문화교육의 내용체계를 제시하면 표2와 같다.

38) 위의 논문, 155-156쪽 참조.

## IV. 외국인 대상 독도 문화교육의 방법

적절한 교수·학습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학습 목표와 내용, 학습자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 보완하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교사 측면의 변인으로서 교사의 관점이나 능력, 흥미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자 측면에서는 학습자의 능력이나 관심, 태도 등의 변인, 그리고 학습 목표나 내용 등 학습 과제 변인 및 주어진 시간, 공간, 교재 등의 상황 변인을 고려해서 적절한 모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모든 수업 사태에서 만병통치약처럼 적용될 수 있는 완전한 단일의 수업 모형이란 존재할 수 없고 목적과 과제에 따라 수업의 형태도 달라져야 하므로 교사는 적절한 수업 모형을 선택,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sup>39)</sup> 이하에서는 가치탐구학습 모형을 적용한 독도 문화교육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예시적으로 제시해보는 한편 대상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독도 문화교육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1. 독도 문화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가치탐구학습 모형’ 적용

‘독도’ 문화교육 교수·학습 방법의 모형으로서 ‘가치탐구학습 모형’을 적용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면 표3과 같다. ‘가치탐구학습 모형’은 학습자가 언어에 내재된 가치를 탐구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이해심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데 알맞은 모형으로서, 그 절차는 자료 탐구하기 → 가치 확인하기 → 가치 평가하기 → 가치 재구성하기이다. 자료 탐구하기는 가치를 추출 또는 발견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학습문제를 확인하고 가치를 포함하는 언어 맥락이나 담화자료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가치 확인하기는 과제나 자료의 분석을 토대로 내재된 가치를 확인하고 그 가치의 근거를 제시된 맥락이나 담화자료에서 찾는 단계이다. 가치 평가하기는 확인된 가치 하나하나를 비교·분석·비판하고 나름의 기준을 적용하여 가치를 평가하거나 선택하는 단계이다. 가치 재구성하기는

39) 최미숙 외, 『국어교육의 이해』(사회평론, 2012), 91-92쪽.

표3- '독도' 문화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가치탐구학습 모형 적용 예시

주제	독도			수준	중·고급
교수학습 목표	독도가 한국의 동쪽인 동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한국 국민의 삶의 터전으로 함께해온 소중한 우리 땅임을 이해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60)	자료 및 유의점
도입	자료 탐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 분석</li> <li>학습문제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영상상을 보여주며 문제 상황 확인(뉴스: 한국 대통령의 독도 방문시절 및 일본의 항의 관련)</li> <li>•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국민의 삶의 터전으로 함께해온 소중한 동쪽 끝 섬임을 이해할 수 있다.</li> </ul>	5분	KBS 뉴스(1분 18초 분량) http://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17443
	가치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치 확인</li> <li>가치 근거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가 가치에 대하여 모둠별로 조사하고 그 내용을 서로 발표</li> <li>- 자연적 가치(동식물 생태환경)</li> <li>- 경제적 가치(수산업, 해저자원)와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 EEZ)</li> <li>- 방공식별구역(KADIZ)과 지정학적·안보적 가치</li> <li>• 독도가 한국 땅임을 보여주는 자료들</li> <li>- 한국·일본의 지도, 시료 등</li> <li>• 독도에서 한국이 실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료들</li> <li>- 서도의 주민(어민) 추수, 동도의 등대와 경찰 경비마서, 독도 영해의 해경 순시, 독도 상공의 공군 전투기, 일반인의 독도 입도 관광 등</li> </ul>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지</li> <li>지도(사진, 그림)</li> <li>PPT</li> </ul> <p>(관련 사이트: 외교부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국토지리정보원, 경상북도 사이버독도 등)</p>
전개	가치 평가하기	가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모뎀별로 정리해보고 서로 발표</li> <li>•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자료</li> <li>- 독도가 일본 영토 이남'을 보여주는 일본 측 자료(태정관 문서, 조선국교제시말내담서 등)</li> <li>• 독도를 지킨 한국 사람들(조선시대 안용복, 독도의용수비대, 독도 주민 최종덕·김성도 가족 등)</li> </ul>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지, PPT</li> </ul> <p>(웹사이트: 한국 관련 사이트 및 일본 외부성 누리집 등)</p>
	가치 재구성하기	가치 재구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 러일전쟁(1905) 이후에 일본이 함대 침략한 일제 식민의 상징, 현재 이래 한국이 영토주권을 행사하는 한국인의 소중한 땅</li> <li>• 독도지킴이 시민단체(반크 등) 사이트 알아보기</li> <li>• 독도 체험 장소 및 가는 방법 알아보기</li> <li>- 독도체험관(서울), 독도박물관(울릉도), 독도 방문하고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 신청하기 등</li> <li>• 바람직한 국제사회 사례 적용(미·쿠바, 후벤투드 섬 영유권 갈등 해결 사례)</li> </ul>	15분	관련 웹사이트, 홍보물 브로슈어 등
정리	학습 내용 정리	전체 학습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활동 정리</li> </ul>	5분	

분석하고 평가한 가치를 토대로 자신의 가치를 재구성하고, 자신의 언어 생활에서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할 것인가에 대하여 탐구하거나 실제로 적용해보는 단계이다.<sup>40)</sup>

위에 언급한 가치탐구학습의 '자료 탐구 → 가치 확인 → 가치 평가 → 가치 재구성' 절차는 '선택하기 → 궁지 갖기 → 행동하기 → 내면화하기' 등 다른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sup>41)</sup>, 기본적인 맥락은 같다고 볼 수 있다. 도덕과의 가치탐구학습이 바람직한 가치의 발견이나 내면화에 그 초점이 있다면, 국어과의 가치탐구학습은 다양한 가치의 발견과 이에 대한 비판적 수용에 그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sup>42)</sup> 한편, 역사과의 가치탐구학습 과정은 당대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민족의 가치 선택을 이해시켜야 하며, 이를 현실과 연결 지어봄으로써 그러한 유사 상황에서 자신이 선택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학습과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sup>43)</sup>

표3의 가치탐구학습 모형을 적용한 '독도' 문화교육 교수·학습 과정안에 따르면, '자료 탐구하기' 단계에서 우선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지난 2012년 8월 당시 한국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일본의 항의와 관련된 뉴스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한·일 간 독도를 둘러싼 현 문제 상황을 확인시키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가치 확인하기' 단계에서는 먼저 독도의 여러 가치뿐만 아니라 가치의 근거들을 확인하게 된다. 독도의 가치 확인과 관련해서는 각 모듈별로 동식물 등 자연적 가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경제적 가치, 방공식별구역(KADIZ)과 지정학적·안보적 가치 등 조사한 내용을 서로 발표하며, 이들 가치의 근거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독도 관련 고지도와 고사료는 물론 한국의 영토주권 행사를 나타내는 등대, 주민(어민) 숙소, 경찰 경비막사, 독도 영해의 해경 순시, 독도 상공의 한국 전투기 비행 등에 대해 살펴본다.

그다음 '가치 평가하기' 단계에서 각 모듈별로 독도영유권 관련 한국과 일본의 주장을 서로 비교하면서 일본의 주장이 허구임을 입증하는 일본

40) 최미숙 외, 앞의 책, 99-101쪽 참조.

41) 김재봉, 「가치탐구 학습법의 적용 방안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12집(2003), 11-12쪽; 이정숙, 「국어과 교수학습 모형의 탐색과 방향」, 『한국어문교육』 제12집(2003), 438쪽 참조.

42) 최미숙 외, 앞의 책, 100쪽.

43) 정권영, 「사회과의 가치 학습 탐구 과정의 지도 실제: 역사 교재를 중심으로」, 『부산교육』 228호(1983), 155쪽.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 문서 등을 확인하고, 아울러 역사적으로 한국의 독도를 지켜온 조선시대 안용복을 비롯하여 독도의용수비대와 독도 주민(최종덕, 김성도 가족)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이상의 가치탐구학습 과정을 통해 마지막으로 독도가 러일전쟁 외중에 한때 일본에게 침탈당했다가 다시 되돌아온 한국의 소중한 영토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가치 재구성’ 및 독도지킴이 활동, 독도 체험, 그리고 독도 방문 가는 길 등을 알아보는 ‘가치 적용’ 활동의 ‘가치 재구성 단계’로 학습을 마무리 정리하게 된다.

## 2. 비교문화론적 대상 국가별 독도 문화교육 방안

앞서 논의한 ‘기능-태도’의 문화교육 단계 중 ‘기능’ 단계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다시 부연하면, ‘기능’은 기능을 아는 것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는 표현과 이해를 통해 문화를 실행하는데,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목표문화의 관점과 내용, 문화목표와의 접촉 경험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신의 문화와 비교하고, 내부자와 외부자의 관점을 모두 이해하며, 학습자 모국의 문화를 분석, 비교하는 능력을 이용하여 목표문화를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독도 문화교육과 관련하여 해당 외국인들의 도서영유권 분쟁의 경험 여부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해외 국가들의 ‘독도 관련성 여부’와 ‘도서분쟁 경험 여부’ 및 ‘(피)식민국 경험 여부’ 등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독도 문화교육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sup>44)</sup> 유형별 국가 구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독도 관련국’과 ‘독도 비관련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독도 관련국’은 세부적으로 ‘직접 관련국’과 ‘간접 관련국’으로 다시 구분된다. ‘직접 관련국’에는 한국과 일본이 해당되고, ‘간접 관련국’에는 일본과의 도서영유권 사례가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

44) 비슷한 맥락으로 대상 국가별 맞춤형 독도영유권 홍보 전략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배진수, 「G20 국가의 한국 관련 바른 인식 제고 과제: 교과서 한국서술, 독도영유권, 국제개발협력(MDGs) 이슈를 중심으로」, 『국제문제연구』 제10권 제2호(2010년 여름), 18-22쪽 참조.

약 당시 한·일 간 영토 처리 초안 작성에 관련되었던 미국, 영국, 호주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독도와 관련성이 없는 국가들에게는 ‘도서분쟁 경험 여부’ 및 ‘식민침탈 경험 여부’ 등을 고려한 문화교육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도서분쟁 경험 여부에 따라 도서분쟁을 경험한 적이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독도와 유사성’ 정도를 비교하여 ‘고유영토론 또는 실효지배’ 논거를 차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은 한국처럼 피식민 침탈로 비롯된 도서분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게는 식민침탈의 부당성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공감대를 유도해내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프랑스나 터키처럼 도서분쟁 경험은 있지만 한국과는 반대로 식민국의 제국주의 경험을 가진 국가들에게는 ‘피침탈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들에게 거부감을 증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들 제국주의 경험이 있는 국가에게는 한국의 현 독도 실효지배 상황을 부각함으로써 국제질서의 현상유지 경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독도와 관련성도 없으면서 도서분쟁 경험도 없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도서영유권 자체에

표4-비교문화론적 대상 국가별 맞춤형 독도 문화교육 방안

비교문화론적 관점		해당 국가	독도 문화교육 방안		
독도 관련국	직접 관련	당시국	한국		
		상대국	일본		
	간접 관련	일본과의 도서분쟁 관련국	러시아 중국	독도가 한국의 삶의 터전으로서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전달	
		대일강화조약	미국, 영국, 호주		
독도 비관련국	도서 분쟁 경험	피식민 경험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식민침탈사의 역사문화적 경험을 통해 공감대 유지
		식민국 경험	프랑스, 터키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강조함으로써 국제질서의 현상유지 지지입장 유도
		식민지 무관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독도가 한국의 삶의 터전으로서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전달	
	도서 분쟁 비경험	피식민 경험	브라질, 멕시코	식민침탈사의 역사문화적 경험을 통해 공감대 유지	
		식민국 경험	독일, 이탈리아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강조함으로써 국제질서의 현상유지 지지 입장 유도	
		식민지 무관		독도가 한국의 삶의 터전으로서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전달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가 낮음을 감안하여 독도가 한국인의 삶의 터전이라는 독도 문화교육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상 국가 유형별 비교 문화 관점에서의 독도 문화교육 방안을 정리하면 표4와 같다.

## V. 맺음말

이 글은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교육의 내용으로서 2006년 문화관광부 선정 100대 한국 민족문화상징의 '강역' 항목에 해당되는 '독도' 항목을 중심으로 문화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을 통한 한국 관련 국제적 바른 인식을 제고해보고자 시도하였다.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일본은 영토문제로 접근하는 데 반해, 한국은 영토문제가 아닌 역사문제로 보는 점이 일본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외국인들에게 독도가 한국인의 삶의 터전임을 강조하면서 독도를 역사문화 교육 측면에서 소개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약 30종의 기존 한국문화 교재 중 절반 이상이 생활문화, 전통문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국 관련 국제사회의 바른 인식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강역(영토)이나 역사 등과 같은 주제들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독도 주제를 조금이라도 다루고 있는 교재는 3종에 불과하였는데,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문화 교재 1종을 제외한다면 순수 외국인을 대상으로 독도를 다룬 한국문화 교재는 2종에 불과한 셈이다. 그리고 이마저도 독도 관련 기술이 자칫 한국의 대외적 입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교재의 기술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주제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방법 측면에서 '지식-기능-태도'의 문화교육 단계에 의거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평균적인 교양 정도를 측정하여 이를 모델로 삼아 문화 학습의 범위와 깊이를 설정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았다. 이를테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초급·중급·고급 수준별로 한국문화에 대한 평균적인 교양 정도를 각각 한국 학생들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수준으로 상징하는 식으로 적용해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2011년 2월 28일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보낸 ‘독도 교육 내용체계(가이드라인)’를 원용하여, 국내 초·중·고 학생들이 아닌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염두에 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독도 문화교육 내용체계(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의 독도 문화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독도 문화교육의 내용체계는 지식-기능-태도의 범주에 의거하여 초·중·고급별로 브루너의 나선형 과정을 적용하여 구성해보았다. ‘지식’ 문화교육 내용으로서 독도의 지명, 위치, 지형 등을 예시로 초급·중급·고급별 문화교육 내용을 구분하였다. ‘기능’의 문화교육 단계와 관련해서는 듣기·말하기·읽기·쓰기와 관련된 문화교육 활동으로 구성하고, 태도와 관련해서는 자연(생태환경)적 가치, 경제적 가치, 안보적 가치 등을 예시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도 문화교육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가치학습탐구 모형’을 적용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예시로 자료 탐구하기·가치 확인하기·가치 평가하기·가치 재구성하기 등으로 구분하여 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해·표현·체험 등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교육 방안을 예시했는데, 특히 ‘기능’ 문화교육 단계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의 문화교육 방안을 활용하여 외국인 해당 국가들의 독도와 유사한 도서영유권 경험 또는 식민지 역사 경험 여부 등을 감안한 대상 국가별 맞춤형 문화교육 방안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처럼 식민 침탈의 역사를 경험한 국가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식민 침탈의 역사문화를 통한 독도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독도와 관련된 국가 및 도서영유권 분쟁의 경험이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독도가 한국인의 삶의 터전임을 강조하는 문화교육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상 이 글에서는 한국문화교육의 소재로서 민족문화상징의 강역에 해당되는 ‘독도’ 항목을 중심으로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교육 내용의 체계와 방법을 모색해보았다. 향후 주제의 민감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이론적으로 검증되고 체계화된 문화교육 방안을 통해 국제사회에서도 거부감이 없는 독도 문화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권도경, 「안용복 문화콘텐츠의 존재양상과 독도영유권분쟁 대응사적인 의미」. 『한국언어문학』 제66집, 2008, 205-233쪽.
- 김남예, 「상징을 통한 한국문화교육 연구: 문화 상징 항목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제22권 2호, 2011, 49-73쪽.
- 김병렬, 『일본 군부의 독도침탈사』. 바른역사정립기획단, 2006.
- 김수희, 「한국교과서에서의 독도 기술 검토」.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주최 독도교육 학술대회(2012. 12. 6), 〈한일 양국의 독도 교재 비교 검토〉, 97-118쪽.
- 김재봉, 「가치탐구 학습법의 적용 방안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12집, 2003, 1-22쪽.
- 김재옥, 「한국어 교육」. 『국어연감』, 국립국어원, 2011.
- 김종철,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문화교육의 쟁점과 전망」. 『국어교육』 제133호, 2010, 339-367쪽.
- 김학준, 『독도연구: 한일 간 논쟁의 분석을 통한 한국영유권의 재확인』. 동북아역사재단, 2010.
- 김해옥, 「한국문화 교육 관련 교재 개발 현황과 과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7차 국제학술대회, 2012.
- 민현식,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방향과 방법」. 『한국언어문화학』 제3권 2호, 2006, 137-174쪽.
- 박한나, 『통으로 읽는 한국문화』. 박이정, 2009.
- 배진수, 「G20 국가의 한국 관련 바른 인식 제고 과제: 교과서 한국서술, 독도영유권, 국제개발협력(MDGs) 이슈를 중심으로」. 『국제문제연구』 제10권 제2호, 2010, 1-38쪽.
- \_\_\_\_\_, 『독도 이슈 60년과 한국의 영토주권: 독도 이벤트데이터(1952-2010년)』. 동북아역사재단, 2012.
- 서태열·김혜숙·윤옥경, 『독도 및 울릉도 관련 영토교육 방향 모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 유미림,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2013.
- 이미정, 「한국어 목적 연결어미의 나선형 교육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미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통합 교육: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의 통합 양상을 고려한 교육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제1권 제1호, 2004, 143-163쪽.
- 이정숙, 「국어과 교수학습 모형의 탐색과 방향」. 『한국어문교육』 제12집, 2003, 431-463쪽.
- 임경순, 『한국어문화교육을 위한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9.

장미영, 「세계화 전략을 위한 한국문화의 정체성: 한국인의 미적 지각과 표상방식」.

『國語文學』 제49집, 2010.

정권영, 「사회과의 가치 학습 탐구 과정의 지도 실제: 역사 교재를 중심으로」.

『부산 교육』 228호, 1983, 152-158쪽.

정병준, 『독도 1947: 전후 독도문제와 한·미·일 관계』. 돌베개, 2010.

조재윤 외,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길라잡이』. 박이정, 2009.

최미숙 외,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2012.

최미영 외, 『한국을 찾아라(Find Korea!)』.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 2010.

최장근, 『한국영토 독도의 '고유영토론': 미국과 일본의 영도팽창론을 경계하다』.

제이앤씨, 2014.

한국학중앙연구원, 『외국 교과서에 비친 한국』.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호사카 유지, 『대한민국 독도: 일본 논리의 종언』. BM성안당, 2010.

Kolb, D. A., *Experiential Learning: Its Assessment and Accredita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84.

Moran, Patrick R. 저 정동빈 외 역, 『문화교육』. 경문사, 2001.

## 국 문 요 약

이 글은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교육의 내용으로서 '독도' 항목을 중심으로 문화교육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문화교육을 통한 한국 관련 국제적 바른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역사·영토 이슈와 같은 민감한 현안일수록 민족주의적 정서에 호소함으로써 상대방을 자극하여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보다는 문화인류학적으로 접근한 문화교육의 방식이 훨씬 더 바람직하며 진정한 역내 갈등 해결을 위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국제적 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한국어 및 한국학 전공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교육은 최우선시되어야 하며, 향후 이들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기여도 또한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제Ⅱ장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기존 한국문화교육 교재에서의 독도 기술 실태를 분석하고 독도영유권의 본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제Ⅲ장에서는 지식-기능-태도의 범주에 의거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독도 문화교육의 내용체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독도 문화교육의 실제 방법과 관련하여 교수학습 모형 및 과정안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약 30종의 기존 한국문화 교재들 중 절반 이상이 생활문화, 전통문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국 관련 국제사회의 바른 인식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강역(영토)이나 역사 등과 같은 주제들은 이에 반영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독도 주제를 조금이라도 다루고 있는 교재는 3종에 불과하였는데,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문화 교재 1종을 제외한다면 순수 외국인을 대상으로 독도를 다룬 한국문화 교재는 2종에 불과한 셈이다. 그리고 이마저도 독도 관련 기술이 자칫 한국의 대외적 입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교재의 기술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주제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독도 문화교육의 내용체계는 지식-기능-태도의 범주에 의거하여 초·중·고급별로 브루너의 나선형 과정을 적용하여 구성해보았다. '지식' 문화교육 내용으로서 독도의 지명, 위치, 지형 등을 예시로 초급·중급·고급별 문화교육 내용을 구분하였다. '기능'의 문화교육 단계와 관련해서는 듣기·말하기·읽기·쓰기와 관련

된 문화교육 활동으로 구성하고, 태도와 관련해서는 자연(생태환경)적 가치, 경제적 가치, 안보적 가치 등을 예시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도 문화교육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가치학습탐구 모형’을 적용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예시로 ‘자료 탐구하기-가치 확인하기-가치 평가하기-가치 재구성하기’ 등으로 구분하여 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의 문화교육 방안을 활용하여 외국인 해당 국가들의 독도와 유사한 도서영유권 경험 또는 식민지 역사 경험 여부 등을 감안한 대상 국가별 맞춤형 문화교육 방안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처럼 식민 침탈의 역사를 경험한 국가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식민 침탈의 역사문화를 통한 독도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독도와 관련된 국가 및 도서영유권 분쟁의 경험이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독도가 한국인의 삶의 터전임을 강조하는 문화교육 방안을 제언하고 있다. 향후 주제의 민감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이론적으로 검증되고 체계화된 문화교육 방안을 통해 국제사회에서도 거부감이 없는 독도 문화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투고일** 2014. 6. 20.

**심사일** 2014. 7. 21.

**게재 확정일** 2014. 8. 28.

**주제어(keyword)** 독도(dokdo), 도서영유권(island sovereignty), 한국문화교육(Korean culture education), 한국어 교육(Korean language education), 한국문화상징(Korean cultural symbol)

### A Study on Korean Culture Education for Foreigners Utilizing Dokdo Contents

**Bae, Chin-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courage accurate perceptions of Korea to be formed while teaching Korean culture to nonnative Korean language learners. The study's scope thus focuses on Dokdo contents as a territorial cultural symbol of Korea, which was singled out of one hundred Korean cultural symbols announced in 2006 by then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in Korea. The sovereignty of Dokdo and the naming of the East Sea have been targets of controversy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study assumes an inverse rationale in which covering such topics can contribute to achiev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and communication with different cultures, thereby preventing cultural clashes from arising with nonnative Korean language learners and supporting them to form accurate perceptions of Korea. Therefore, this study places its foremost efforts in identifying content to be taught through culture education and in devising teaching and learning models that best fit the aforementioned rationale.

This study considers Dokdo issue as a subject of Korean culture education in terms of the categories of 'knowledge-function-attitude' as well as Jerome Bruner's idea of a spiral curriculum, which takes a hierarchical approach to learning by first acquiring basic knowledge and then gradually adding levels of sophistication to such knowledge. What should be taught was derived from needs analysis for Korean cultural symbols as well as content analysis of twenty-four different textbooks on Korean culture for non-Koreans.

The study suggests a course plan for the topic 'Dokdo' based on the value inquiry model. The value of utilizing Dokdo contents for Korean culture education is expected to become more essential in the future.